

조선 도교 인물전에 나타난 세속 단절의 양상과 의미*

김수연**

<차 례>

1. 도교 인물전을 읽는 관점
2. 도교 인물전의 목적, 역사적 존재의 확인
3. 도교 인물전의 구성, 세속 연결과 단절의 반복
4. 단절과 회귀, 종속과 독립의 경계에서 소통하기
5. 후대적 변모와 의미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도교 인물전의 부상’이 지닌 의미를 고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초기 도교 인물전의 창작 목적과 구성을 살피고, 그것의 문학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도교 인물전을 고찰했다. 특히 인물이 보인 세속 단절과 세속 회귀의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도교 인물전이 지닌 ‘사회적 단절과 소통’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열선전』, 『신선전』, 허균의 도교 인물전 등에서 확인되는 창작의 목적은 도교 인물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구성은 세속과의 관계를 축으로 ‘연결과 단절’의 반복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출신-수련-이적-득선’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로 재서술 되고, 그 내용은 ‘세속에 종속된 존재-세속에 의해 단절된 존재-세속에 자발적으로 회귀한 존재-세속과 자발적 단절로 완전해진 존재’이다. 또한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는 ‘유교 질서와 어긋나는 다른 자질의 발견-도교적 인간 되기를 통한 존재적 전환-도교 인물의 존재함 확인과 전환된 존재의 세속과 소통-완전한 인간 되기’를 의미한다.

18세기 이후 도교 인물전은 단절보다 회귀에 방점을 둔다. 회귀는 세속과 소통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140).

**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을 위한 장치이다. 단절을 기준으로 존재의 질적 변화를 경험한 도교 인물은 종속과 독립의 경계에서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허균의 시대에는 그들의 존재를 입전자가 증언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대중의 익명성 속에 숨은 도교 인물을 민중이 증언하고 입전자는 그 뒤를 쫓으며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도교 인물은 주자학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중과 소통하며 존재감을 확장한다. 허균 시대에는 도교 인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었고 후대에는 민중의 익명성 안에 깃들여 있는 그들을 발견하는 것이 도교 인물전의 과제였다고 하겠다.

□ 도교 인물전, 『열선전』, 『신선전』, <남궁선생전>, <장산인전>, <장생전>, <김신선전>, <조선선전>

1. 도교 인물전을 읽는 관점

이 글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도교 인물전의 부상’이 지닌 의미를 고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교 인물전은 별칭이 ‘신선전’으로, 『도장(道藏)』에서 ‘선전류(仙傳類)’로 분류되는 서사체이다.¹⁾ 주지하듯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신선전은 한대(漢代) 유향(劉向, 약 B.C.79-B.C.8)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열선전(列仙傳)』이고, 신선전의 전형을 이룬 것은 동진(東晉) 갈홍(葛洪, 283-343)의 『신선전(神仙傳)』이다.²⁾

신선전의 입전 대상인 신선은 ‘초월적·비상적 존재’ 내지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다.³⁾ 연구자에 따라 신선을 협의의 개념으로 보아 ‘불로장생하는 상상적 인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⁴⁾ 신선에는 황제(黃帝) 같은 신화적 인물도

1) 신선전에 포함되는 내용은 『中華道藏』 45-47권 ‘道史仙傳’에 들어 있다. 張繼禹主編, 『中華道藏』 45-47권, 華夏出版社, 2004.

2) 문학의 유형을 말할 때는 ‘신선전’, 저서를 말할 때는 ‘『신선전』’으로 표기한다.

3)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33쪽.

4) 박희명, 「이인설화와 신선전-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있지만 회남왕(淮南王)과 위부인(魏夫人) 같은 역사적 인물이 다수이다.

신선은 도교적 인물 중 ‘죽음을 초월한 존재의 완성형’을 가리키는 말로서, 유교의 ‘성인(聖人)’과 동가치적(同價值的) 위상에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유교의 이인(異人)이 모두 성인인 것은 아니듯이 도교적 인물도 모두 신선은 아니다. 신선전에 기록된 작품 중에는 신선이라 하기에 애매한 위치의 인물이 나오므로⁵⁾ 작품의 실상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신선전’보다 ‘도교 인물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문학의 양식 체계에도 부합된다. “역사기술의 한 양식”⁶⁾인 전(傳)의 하위에 도교 인물전과 유교 인물전이 있고, 그 하위에 다시 신선전과 성인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후한서』에서 신선을 「방술열전(方術列傳)」에 수용한 이후로, 신선을 역사적 존재로 보려는 입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교 인물전을 “소재, 주인공, 주제가 모두 신선 수련과 이적에 관한 것”⁷⁾으로 이해하기보다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신선전』 「하상공(河上公)」조의 ‘하상공이 허공에 오르는’ 이적은 한(漢) 효문제의 오만함에 대한 꾸짖음과 ‘효문제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대결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⁸⁾

조선의 도교 인물전은 개별 사건으로서의 ‘신이한 이적’ 자체보다 이적이 지닌 사회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등장했다. 도교 인물전을 본격화한 허균(1569-1618)은 물론, 이를 계승한 홍만종(1643-1725), 황윤석(1729-1791),

(1), 『한국학보』 14~4, 일지사, 1988, 25쪽; 최춘하, 「조선조 신선전에 대한 분석 및 비교고찰」, 『한국언어문학』 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161쪽.

5) 박희병은 신선이 아닌 이인 관련 설화도 신선전에 포함해서 다루었다. 박희병, 『한국 고전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256쪽.

6) 이경우, 「문집소재 전 양식의 변모양상」, 『한국 판소리·고전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612쪽.

7) 최창록, 『한국신선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4, 21쪽.

8) 갈홍, 임동석 역주, 『신선전』, 동서문화사, 2009, 381쪽.

박지원(1737-1805), 조재삼(1762-1849), 정약용(1762-1836), 조희룡(1789-1866) 등이 모두 사회문제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이 이것을 방증한다.

그동안 조선 도교 인물전 연구는 소설과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김명호와 박희병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김명호는 전(傳)을 “역사와 문학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전기문학(傳記文學)의 일 양식”으로 보고 ‘조선 중기 이후 도교 인물전이 지속적으로 창작된 현상’에 주목하며 “소설과 구별되는 전의 양식적 특성”을 드러내려고 했다.⁹⁾ 전 중에서도 “매우 허황된 이야기”의 속성을 지닌 도교 인물전을 대상으로 전(傳)을 ‘소설의 모태’나 ‘소설의 일종’으로 다루는 시각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문학 양식임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¹⁰⁾ 이와 달리 박희병은 도교 인물전을 둘러싼 조선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찰하며 전의 소설화 경향을 논구했다.¹¹⁾ 같은 시기 같은 대상을 근거로 ‘전과 소설’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유교적 시각에서 도교 인물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박희병은 도교 인물전이 “주자학의 해체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도교 인물의 삶과 입전 태도를 ‘불우와 연민과 공감’으로 해석한다.¹²⁾ 도교 인물의 삶이 ‘주자학이라는 거대한 힘’을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는 ‘불우함이나 그에 대한 공감’ 정도로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불우와 연민과 공감’으로 이해하는 관점에는 도교 인물을 ‘주자학이 주도하는 힘의 위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존재’로 바라보는

9)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한국 판소리·고전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657~658쪽.

10) 김명호, 위의 논문, 657~658쪽.

11) 박희병(1988), 앞의 논문, 25~53쪽;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Ⅱ), 『한국학보』 15-2, 일지사, 1989, 70~97쪽.

12) 박희병(1989), 위의 논문, 92쪽.

유교 보편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작품 중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작품도 있지만, 그것으로 도교 인물전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¹³⁾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 초기 도교 인물전의 창작 목적과 구성을 살피고, 그것의 문학사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도교 인물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인물이 보인 세속 단절과 세속 회귀의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교 인물전이 지닌 ‘사회적 단절과 소통’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교 인물전의 목적, 역사적 존재의 확인

갈홍은 『포박자·내편』에서 득선의 경지에 따라 도교 인물의 유형을 상·중·하로 나누고 각각 천선(天仙)·지선(地仙)·시해선(尸解仙)이라 했다.¹⁴⁾ 이방 등은 『태평광기』에서 행위 주체에 따라 도교 인물을 신선·여선·방사·이인으로 분류했다. 득선의 경지와 행위 주체라는 기준에서 조선 도교 인물전을 바라보면, 득선의 경지에서는 지선과 시해선이 다수이고, 행위 주체에서는 이인의 특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창작에 신화성보다 역사적 현실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신선의 역사성 강조와 지선·시해선 유형의 증가는 범엽(范曄, 398-445)이 『후한서』에 도교 인물전을 편입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갈홍 또한 『신선전』 「서(序)」에서 편찬의 동기를 적으며 신선의 ‘존재함’을

13)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 작품과 작가에 대한 논의들도 이러한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4) 갈홍, 『포박자』 내편, 권2, “上士舉形昇虛, 謂之天仙. 中士遊於名山, 謂之地仙. 下士先死後脫, 謂之屍解仙” 「論仙」. 당말의 두광정은 鬼仙을 첨가했고 『鍾呂傳道集』에서는 귀선 외에 人仙을 포함했다. 정재서(1994), 앞의 책, 129~130쪽.

강조했다. 그는 ‘신선의 역사적 유무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존재함의 증거를 말하고, 기존의 기록이 소략해서 다 드러내지 못한 신선의 훌륭한 일을 갖추기 위해서 『신선전』을 쓴다’고 밝혔다.¹⁵⁾

신선을 기록하는 작가의 태도는 당나라 전기(傳奇) 작가들이 보이는 보사(補史) 의식과 유사하다. 보사 의식이란 정식 역사에 누락된 사건을 기록하여 역사를 보완하겠다는 역사가적 태도이다. <사소아전>의 작가가 “착한 행실을 알고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성인께서 『춘추』를 지으신 뜻에 어긋나도다.”¹⁶⁾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도가의 흐름이 대개 사관에서 나왔다”라고 한 『한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¹⁷⁾

조선 도교 인물전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의 기록과 전달’이라는 보사적 태도로 기록되었다. 허균은 <남궁선생전>의 말미에 “전하는 말에 ‘동방의 사람은 불교를 숭상하고 도교를 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신라부터 조선까지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득도하여 신선 되어 간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그것[신선]을 과연 징험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내가 본 남궁선생으로 말하면 이상하다 할 만하다.”¹⁸⁾라고 적었다. 이어 남궁선생이 만난 스승이나 그에게 들은 말이 실체 없는 말일 것이라 하면서도 “그러나 선생의 나이와 용모로 보건데 진정 득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80의 나이에 그처럼 건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이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¹⁹⁾라고 했다.

15) 갈홍, 임동석 역주(2009), 앞의 책, 42~44쪽.

16) 이공좌, 「사소아전」, 김중근 편역, 『중국전기소설선』, 박이정, 2005, 322쪽.

17) 『한서』 「예문지」 「諸子略」, “道家之流, 蓋出於史官.”

18) 허균, 『성소부부고』 권8, 한국고전번역원, “傳言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觀南宮先生言之, 可異焉.” 번역과 구두는 필요에 따라 필자가 부분 수정했다. 이하 동일.

19) 허균, 『성소부부고』 권8, 한국고전번역원,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먼저 신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선이 없다고 하면 남궁두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남궁두가 보인 기이한 행적이 신선이 없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증거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즉 부정과 의문을 통해 도교 인물과 행적이 ‘실제 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두경도 허균과 유사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흥만종의 『해동이적』 서문에서 “우리 동방은 불씨[부처]만 숭상하고 노씨[노자]를 숭상하지 않았다. … 노씨의 교리는 천하를 다스릴 만하다. … 그렇다면 노씨의 교리가 불씨보다 훌륭하다고 하겠다. … 단군과 기자 이래로 천지의 기운을 먹고 몸을 단련하며 바람을 호흡하고 이슬을 마시는 우리가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숭상하지 않아 전해지지 않았다. … 옛날 유향과 갈홍이 『열선전』을 지었다. 옛 이인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던 것은 이 두 사람의 힘이다. … 홍균[홍만종]의 책 역시 유향과 갈홍에 짝이 된다 하겠다.”라고 했다.²⁰⁾ 이 글 또한 『해동이적』의 편찬이 ‘누락 되어 전해지지 않은 사실’을 기록해 전하겠다는 보사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낸다.

‘존재함의 확인’은 중국의 초기 도교 인물전에서부터 강조한 편찬 목적이다. 유교적 합리주의가 공적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방·기층문화·신화적 상상력과 친밀한 도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교는 ‘이성적 지식’이 아닌 ‘서사적 지식’을 활용하며 인물전을 편찬했다.²¹⁾ 이것은 이성주의에 의존한 유교와 달리, 도교가 이야기

20) 흥만종, 이석호 역저, 『해동이적』, 을유문화사, 1982, 215쪽, “我東向佛不尙老…老教可治天下…然則老教善於釋氏…自檀箕以來, 服氣鍊形吸風飲露之輩, 必多矣. 不尙, 故不傳. …昔劉向葛洪作列僊傳, 古之異人名垂後世者, 二子之力也. 洪君其亦劉葛之儔歟?”

21) 서사적 지식에 대한 논의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역,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1992, 67~68쪽. 리오타르는 ‘이야기적 지식의 화용론’, ‘이야기적 기능과 지식의 정당화’, ‘지식의 정당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서사적 지식의 힘과 역할이 과학적 지식과 독립적이며 상보적임을 논증했다.

의 형성적 힘과 전달의 화용론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던 내력과 관련이 있다.

‘신이한 인물/사건의 실재함’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은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종교와 사상이 ‘대중의 신뢰 획득’, 즉 ‘포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초기 기독교의 전파자들이 ‘부활’과 같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야기로 증명하며 ‘믿음’을 획득했던 것처럼,²²⁾ 『열선전』과 『신선전』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다. 조선 도교 인물전 또한 조선의 사상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유교에 맞서는 지위에서, 위와 같은 문학적 전통을 이었다고 하겠다.

3. 도교 인물전의 구성, 세속 연결과 단절의 반복

도교 인물전의 내용 구성은 ‘출신-수련-이적-득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의 ‘존재함’을 증명하려는 글의 특성상 ‘출신’에서는 구체적 지명과 활동 시기를 제시하여 인물이 역사적 존재임을 확인한다. ‘수련’은 도교 인물전 서사의 핵심이다. 수련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적’은 수련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에 오른 인물이 세속에 돌아와 행하는 퍼포먼스이자 자기 증명의 과정이다. 도교 인물은 이적을 통해서만 기억되거나 기록된다. 이적은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고 전달의 화용론을 통해 존재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 즉 도교 인물의 ‘존재함’을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득선’은 도교 인물의 최종적 모습이다.

도교 인물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수련 방법에 초점을 두고 내단적 특징과 외단적 특징을 비교하거나 분석했다. 그러나 수련 방법을 소재

22)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참조. 대한성서공회, 『큰글자 굿데이 성경전서』, 생명의말씀사, 2019, 86~142쪽.

차원에서만 다루다 보면, 도교 인물전의 사회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 수련법에 집중한 분석은 도교 인물전의 주제를 ‘불우’라는 ‘유교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도교 인물전을 통해 도교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고 유교적 이성주의에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도교 인물과 세상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교 인물과 세속의 관계를 고려하면 ‘출신-수련-이적-득선’의 내용 구성은 ‘세속-단절-회귀-단절’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회귀’란 세속으로의 회귀이다. 이것을 초기 도교 인물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 (작품)	출신	수련	이적	득선
	세속	단절	회귀	단절
팽조 ²³⁾ (열선전)	은나라 대부	스스로 도인행기(導引行氣) 수련	풍우(風雨) 부림	천선/승선
팽조 ²⁴⁾ (신선전)	황제 전옥의 현손, 은 말 사람	유복자, 어려서 고아, 유랑 스스로 보양도인(保養導引)	760세에 소년 모습	지선/은나라 떠남
비장방 ²⁵⁾ (신선전)	여남 땅 시연 벼슬	도교적 자질, 호공에게 욕됨 인내 수련	귀신을 부림	지선/속세
조구 ²⁶⁾ (신선전)	상당 사람	나병, 자손의 유기, 선인에게 송지(松脂) 복용법 수련	300세에 소동 모습	지선/포독산
위자동 ²⁷⁾ (전기)	당나라 정원 연간 사람	도사의 단약 제조 돕기, 복약	얼굴이 젊어짐	지선/남약

『열선전』과 『신선전』에 모두 나오는 대표적 도교 인물 팽조는 출신이 은나라 사람이고 신분은 대부이다. 『신선전』에서 호공에게 수련법을 전수 받는 비장방은 여남 땅 출신이라고 하여 지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

23) 유향, 임동석 역주, 『열선전』, 2012, 120~121쪽.

24) 갈홍, 임동석 역주(2009), 앞의 책, 60~70쪽.

25) 갈홍, 임동석 역주(2009), 위의 책, 400~409쪽.

26) 갈홍, 임동석 역주(2009), 위의 책, 315~318쪽.

27) 배형, 최진아 역, 『전기』, 푸른숲, 2006, 97~102쪽.

선전』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조구도 상당 지역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전기』에 실린 위장동은 당나라 정원(貞元, 785년~805년) 연간이라고 하여 시대를 특정했다. 『속현괴록』의 두자춘은 전에서 보듯 경우 인물의 구체적 시대와 장소가 출신에서 제시되었다. 시대와 신분, 지역을 통해 인물에 역사성을 부여한 것이다.

수련을 하게 된 계기와 양상은 다양하다. 팽조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려서 고아가 된 후 유랑을 하다가 수련 과정에 들게 되었고, 주로 도인법을 중심으로 한 내단법을 연마했다. 비장방은 원래 도교적 자질을 타고 났고, 신선인 호공에게 욕념을 인내하는 내단법을 전수받았다. 조구는 나병에 걸린 후 자손에게 버려지고 나서 선인에게 송지 복용법을 배운다. 위장동은 도사의 단약 제조를 돕다가 선약을 복용하는 외단법을 수련한다. 수련 과정은 모두 세속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수련을 마친 인물은 세속으로 회귀해서 이적을 보인다. 팽조는 비바람을 부리거나 7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비장방은 귀신을 부리는 것으로 회자되었다. 조구는 300세에 소동의 모습을 유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위장동은 점점 얼굴이 젊어지는 이적을 드러냈다. 가장 많은 이적이 ‘늙지 않음’이다. 늙지 않으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로(老)’를 막아 ‘병(病)’과 ‘사(死)’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삶을 사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도교 인물이 늙지 않는 이적을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늙지 않는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실어 도교 인물의 이야기를 전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존재함’을 증명한 도교 인물은 도교의 최종 단계인 신선이 된다. 팽조의 경우 초기 기록인 『열선전』에서는 최고 수준의 천선이 되었고, 『신선전』에 오면 지선이 된다. 비장방 이하는 모두 지선으로 속세의 특정 지역에 남는다. 이러한 내용 구조는 도교 인물이 세속에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절과 회귀를 통해 완전한 인간인 ‘신선’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는 조선 도교 인물전에서도 계승된다. 먼저 허균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물 (작품)	출신	수련	이적	득선
	세속	단절	회귀	단절
남궁두 (남궁선생전) ²⁸⁾	임피 유지, 사마시 합격, 성균 유생	가족의 배신, 살인, 권진인에게 벽곡·운기·경전·육님 인내를 수련	83세에 46-47세로 보임	지선/산중, 용담
권진인 (남궁선생전)	상락 대성(大姓), 권행 증손	풍라(風癩), 부모의 유기, 정양진인 사숙, 경전 수련	귀신을 부림 500살 가까이 장수	천선/치상산 승선
장산인 (장산인전) ²⁹⁾	3대 양의(癘醫) 가문	부친의 유훈, 경전 숙독, 이인에게 연마법	귀신을 부림 생명을 살림	시해선/금강산
장생 (장생전) ³⁰⁾	밀양 좌수 아들	서모의 간계, 부친의 출거 명령	이야기와 노래 홍내내기, 예언 도둑을 잡음	시해선/ 해동일국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전라도 임피(臨陂) 지방에서 “집안도 오래되고 재산도 넉넉하여 고을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의 출신이다.³¹⁾ 게다가 자신은 “30세에 을묘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과장(科場)을 올랐다. 일찍이 〈대신불약부(大信不約賦)〉라는 글을 지어 성균관 시험에 수석으로 뽑혀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전송(傳誦)하기도 했다.”³²⁾ 실제 지명과 가문의 규모 그리고 과거 급제 사실 및 작품 제목을 적어 인물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특히 을묘년(1555, 명종10)에 30세임을 밝혀 그가 살던 시대를 더욱

28) 허균, 임형택 역, 『성소부부고』 권8, 〈남궁선생전〉, 한국고전번역원, 1983.

29) 허균, 임형택 역, 『성소부부고』 권8, 〈장산인전〉, 한국고전번역원, 1983.

30) 허균, 임형택 역, 『성소부부고』 권8, 〈장생전〉, 한국고전번역원, 1983.

31) 〈남궁선생전〉, “世居臨陂, 家故饒財雄於鄉.”

32) 위의 글, “年三十, 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賦, 魁泮解, 人皆傳誦之.”

구체화했다.

남궁두의 스승인 권진인은 현실성보다 신이성이 강조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상락(上洛, 상주)의 대성(大姓) 가문 출신이고 권행의 증손임을 밝혀 실존성을 부각했다.³³⁾ 권행은 고려 전기 공신이자 안동권씨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장산인전〉의 장산인은 이름이 한웅(漢雄)이다.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할아버지로부터 3대에 걸쳐 양의(瘍醫) 업무에 종사했었다”라고 하여 그가 속한 계층과 집안 대대로 이어온 가업을 들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³⁴⁾ 양의는 혜민서에 복무하는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장한웅이 증인이지만 관료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³⁵⁾

〈장생전〉의 장생은 밀양의 좌수 아들이다. 장생도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기축년(1589, 선조22)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여 활동했던 시기를 특정해서 역사성을 부각했다. 또한 “아버지는 밀양(密陽)의 좌수(座首)”라는 말을 통해 그의 출신 지역과 신분을 드러내었다.³⁶⁾

수련을 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배신과 유기(遺棄), 부친의 유훈과 도교적 자질 등이다. 구체적 수련 방법은 진인(眞人)과 이인(異人)을 스승으로 삼아 벽곡이나 운기법을 연마하거나 경전을 숙독하는 것이다. 집안이 도교적 계통이었던 장산인을 제외하고, 수련의 계기 즉 세속 단절의 이유가 가족의 배신(背信)과 유기(遺棄)와 출거(出去)이다. 가족과의 절연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 수련에 들게 된다.

33) 위의 글, “我卽上洛大姓子大師幸之曾孫子也.”

34) 〈장산인전〉, “張山人名漢雄, 不知何許人也, 自其祖三世業瘍醫.”

35) 정약용, 『경세유표』 권1 「天官吏曹」, 한국고전번역원, “전의감과 혜민서는 『주례』에 있는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36) 〈장생전〉,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중략 父爲密陽座首.”

이적의 내용은 늙지 않는 것, 귀신을 부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흉내를 내거나 기이한 도둑을 잡는 것이다. 남궁두는 수련 후 83세에도 40대처럼 보였고,³⁷⁾ 권진인은 500살 가까이 장생했다. 권진인은 송(宋) 나라 희녕(熙寧) 2년(1069)에 태어났는데,³⁸⁾ 남궁두가 무오년(1558) 가을에 자신을 배신한 첩과 당질을 죽이고³⁹⁾ 도망쳐 금대산에서 총지리는 범명으로 1년을 보내고 치상산에서 스승을 찾아 또 1년을 보낸 후 7년 간 수련을 했으니, 남궁두와 헤어질 때 권진인의 나이는 최소 498세가 된다.

그밖에 권진인과 장산인은 귀신을 부렸고, 장산인은 생명을 살리며 장생은 흉내내기와 도둑 잡기로 이적을 드러냈다. 그런 후 500세를 산 권진인은 천선이 되었고 나머지 인물은 지선과 시해선이 되어 삶을 완성한다. 그들은 각각 세속의 한 지역 특히 산과 바다에 머문다. 이러한 내용은 초기 도교 인물전이 보여준 목적과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초기 도교 인물전과 17세기 조선 도교 인물전 모두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를 공유한다. 대개의 도교 인물은 세속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가족과 가문 등 세속의 질서에 종속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세속에 의해 배척되고 세속에서 밀려난다. 스스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속에 의해 단절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수련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전환된다. 그 다음 그는 자발적으로 세속에 돌아온다. 세속으로의 회귀 후 이적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변화한 모습을 세상에 증명하고,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세상과 단절을 고하며 신선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는 ‘세속에 종속

37) <남궁선생전>, “先生今年八十三, 而容若四十六七歲人.”

38) 위의 글, “生於宋熙寧二年.”

39) 위의 글, “戊午秋, 斗以事急還鄉, 未及一舍所日曛, 留僮從, 獨一騎馳至墅, 則已燃燈矣. 僕隸咸休, 中門洞啓, 見妾艷粧麗服佇於階, 而堂姪者踰東短垣, 足未及地者半咫, 妾遽前摟抱.-중략-先貫女胸腹立潰, 其男驚起, 跳北窗出, 又射之中脅斃.”

된 존재-세속에 의해 단절된 존재-세속에 자발적으로 회귀한 존재-세속과 자발적 단절로 완전해진 존재'로 재서술 된다. 이것은 세속에의 '연결과 단절'의 반복을 통한 '완전한 인간되기'의 서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속에의 '연결과 단절'은 세속에의 '종속과 독립'이며, 이것의 반복은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적 전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계를 넘노는 자유로운 존재의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기'의 방법 모색이라 할 것이다.

4. 단절과 회귀, 종속과 독립의 경계에서 소통하기

도교 인물전은 세속과의 '연결과 단절'의 반복을 통해 완전한 인간인 신선이 되는 서사구조를 지닌다. 단절은 반복을 거쳐 단절의 주체가 세상에서 인물로 이동한다. 인물의 입장에서 단절은 그 성격이 피동적 단절에서 능동적 단절로 변화한다. 그것은 인물이 세상에 종속된 존재에서 독립된 존재로 변화하는 경험이다. 또한 연결과 단절을 반복하는 것, 특히 세속과 단절한 후 다시 세속에 회귀하는 것은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역동성을 말한다. 그렇게 도교 인물은 세상의 경계 위로 움직이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조선 도교 인물전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작품, <남궁선생전>에서 단절과 회귀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해보겠다. 남궁두는 집안의 조건과 개인의 재주가 유교적 질서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고, 전라도 유망한 인물로 나온다. 전라도 임피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재산도 유족한, 지역 최고의 집안” 출신인⁴⁰⁾ 남궁두는 박사 제자로 30세에 사마시에 합격했고 문재(文才)도 성균관의 최고였다. 그러나 기질 면에

40) 위의 글, “家故饒財雄於鄉.”

서는 당시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녔다. 그는 ‘괴팍, 자궁, 강직’하며 ‘감히 하는 바’가 있었고 마을에서는 재주를 믿고 꾀꾀하여 현령과 아전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⁴¹⁾ 이것은 마을 공동체의 질서와 위계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예(禮)’를 준거로 하는 마을 사람들이 남궁두에게 ‘눈을 흘긴’ 것이다.⁴²⁾

남궁두가 마을 공동체라는 세상과 단절하게 되는 계기적 사건은 ‘살인’이다. 살인의 원인은 첩과 당질의 불륜이다. 첩과 당질은 ‘예’라는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가족과 친척 공동체를 대변한다. 평소 남궁두에게 ‘예가 없다고 눈을 흘긴’ 사람들이 정작 그를 속이고 배신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세상과 단절하는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 남궁두는 지역의 세력 있는 사족(士族)이고 성균관 유생이라는 지위에 있었기에 세상에서 삶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사족 가문의 가장이 불륜을 저지른 무인 집안 출신 첩과 이성 당질을 살해한 것이 가부장적 유교 질서 내에서 ‘반드시 죽을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궁두는 왜 우발적 살인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체를 유기한 후 고향을 떠났을까? 그가 세상과 단절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지배 질서에 대한 불신이다. 남궁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관(官)에 알리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목상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질은 관청의 마음을 믿을 수 없어서였다.⁴³⁾ 그의 불신을 증명하듯 남궁두를 불쾌하게 여기던 현령과 아전은 남궁두가 곤란에 빠지 상황을 기뻐하며 사적인 혐의로 당질을 모살한 사건이라고 죄안을 왜곡했다.⁴⁴⁾ 그 후 남궁두는 이송 중에 탈옥하여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

41) <남궁선생전>, “斗伉偏自矜橫剛忍敢爲, 恃才豪橫於閭里, 倨不爲禮於長吏.”

42) <남궁선생전>, “縣上下俱側目於斗.”

43) <남궁선생전>, “斗欲告官, 以點汚門戶, 且難保長吏心.”

44) <남궁선생전>, “令與諸吏固嘗不快於斗, 俱喜而欲甘心以私嫌謀殺堂姪爲案.”

남궁두는 작품에서 내내 기본 자질이 ‘참을성 많은 사람’으로 일컬어진다.⁴⁵⁾ 그럼에도 그는 첩과 당질의 불륜을 목격한 순간 참지 못한다. 아니, 참지 않는다. 그것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척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예의 위선/배신에 대한 그 자신의 결정이다. 이후 타협을 모색하지 않는 것도 세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하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참을성 많은 사람’이라는 자질은 수련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가 도교적 기질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남궁두의 ‘세속 단절’은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교적 질서에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그의 ‘꽂꽂한’ 기질과 연관된 필연적 결과이다. “괴팍, 자궁, 강직[伉偏自矜橫剛]한 기질, 남들은 ‘예’에 구속되어 차마 못하는 것을 “감히 하는[忍敢爲]” 성정, 그리고 현령과 아전에게 “예를 행하지 않는 오만함[倨不爲禮於長吏]”은 ‘악인’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자질이다. ‘자유인’이야말로 도교적 인물의 주요한 성향이다. ‘자유인’이어야 그 어떤 권위와 유혹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괴팍하고 오만하다고 평가한 성격을 남궁두의 스승은 “박고(朴固)하고 강인(剛忍)함”이라고 표현하며, 수련하기 좋은 자질로 보았다. 남궁두의 도교적·자유인적 기질이 유교적 세상에 대한 단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세속과 단절 후 남궁두는 금대산에서 ‘총지(摠持)’⁴⁶⁾라는 중이 되었다가 산신(山神)의 현몽으로 위기를 피하고, 지리산 쌍계사를 거쳐 태백산을 향

45) <남궁선생전>, “續有一僧至, 丰秀年少, 解襪距堂廉睨曰, 君, 士族也, 何脫削乎? 俄曰, 性忍者…長老熟視之, 笑曰, 君忍人也.”

46) 총지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시기 혜통(惠通)이 개종한 불교의 종파인 총지종과의 관련성이 있다. 총지종은 신라부터 조선까지 존속한 밀교(密敎) 계통으로 종파이다. 김수연, 「고려 후기 총지종의 활동과 사상사적 의미」, 『회당학보』 16, 회당학회, 2011, 254쪽. 총지종은 다라니를 활용한 질병 치료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치병·양생의 도교와 소통하는 지점이 있다.

하는 길에 의령에서 관상술을 배운 승려를 만나 그의 스승이 있다는 치상산으로 가 장로(長老)를 만난다. 그리고 장로의 문하에서 벽곡(辟穀), 운기(運氣), 호흡(呼吸), 내단 수련서 만독(萬讀) 등을 통해 상승(上昇, 천선)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⁴⁷⁾ 그러나 마지막 육념 인내 시험의 막바지에서 “문득 급히 이루어려는 마음이 싹 터”⁴⁸⁾ 신태(神胎)를 완성하지는 못한다.

“불성신태[不成神胎]”의 ‘불성’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타고난 자질과 수련의 전 과정에서 최고의 인내를 보여준 남궁두가 신태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신선의 경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누구나 쉽게 신선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유교나 도교나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은 지난(至難)하다. 특히 도교 인물전에는 이러한 ‘불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속현괴록』의 〈두자춘〉이나 『신선전』의 〈호공〉의 비장방 이야기에서도 ‘불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도 “신태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선은 될 수 있고, 조금 더 수련하면 800세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⁴⁹⁾ 800세를 산다는 것은 세속의 지존인 은왕이 스승 삼고자 했다가 실패한 지선(地仙) 팽조(彭祖)의 경지이다.⁵⁰⁾

스승과 헤어진 후 남궁두는 지선의 경지를 완성하기 위해 용담이라는 곳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낸다. 스승의 가르침은 ‘황정(黃精) 먹기, 복두칠성 숭배, 음인과 도둑 죽이지 않기, 비린 것과 고기를 먹지 않기, 타인을 음해 않기’이다.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지선이고 수행을 계속하면 승선(昇仙)도 할 수 있다고 했다.⁵¹⁾ 덧붙여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47) 〈남궁선생전〉, “長老曰, 君有道骨, 法當上昇, 下此則不失爲喬鏗矣.”

48) 〈남궁선생전〉, “欲速之心遽萌芽”

49) 〈남궁선생전〉, “長老曰, 君雖不成神胎, 亦可爲地上仙, 少加樽養, 則八百年之壽可享矣.”

50) 『신선전』 〈팽조〉에서 은왕이 팽조를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속세의 권위로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이 강조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⁵²⁾ 이것은 도교의 양신법(養神法)인 ‘수일(守一)’ 혹은 ‘진일(眞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⁵³⁾ 양생의 수련과 더불어 상생의 도교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남궁두 또한 사람들에게 “몰래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며 욕념을 끊고 마음을 단련하면 상선(上仙)의 경지에 곧 이를 것이고, 난새와 학이 머지않아 내려와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하며⁵⁴⁾ 스승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후 그는 치상산 근처 용담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세속 안에 위치한 공간이면서 세속의 질서가 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용담은 세속을 지배하는 유교적 질서/예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독립된 자유인으로 도교적 삶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경계 공간이다. 그곳에서 남궁두는 세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40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도교 인물인 자신의 존재함을 증명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그가 소통하는 이유는 유교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삶의 윤리가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장산인전〉의 장한웅은 양의(瘍醫) 집안의 인물이다. 양의가 혜민서에 복무하는 의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장한웅이 중인이지만 관료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⁵⁵⁾ 그가 세속과 단절하는 것은 부친의 영향이다. 양의였던

51) 〈남궁선생전〉, “餌黃精, 拜北斗, 不殺姪盜, 不茹葷狗牛肉, 不陰害人, 則此地上仙. 行脩之不息, 亦可上昇矣.”

52) 〈남궁선생전〉, “此外修心之要, 唯不欺爲上.”

53) 갈홍, 『포박자·내편』 권18, 「地眞」, “守一存眞, 乃能通神, 少欲約食, 一乃留息, 白刃臨頸, 思一得生, 知一不難, 難在於終, 守之不失, 可以無窮, 陸辟惡獸, 水却蛟龍, 不畏魍魎, 挾毒之蟲, 鬼不敢近, 刃不敢中, 此眞一之大略也.”

54) 〈남궁선생전〉, “輒曰, 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絕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

55) 정약용, 『경세유표』 권1 「天官吏曹」, 한국고전번역원, “전의감과 혜민서는 『주례』에 있는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부친은 상륙(商陸)이라는 약재를 먹고 귀신을 부릴 수 있게 되었고, 98세에도 40대의 나이로 보였다 하니 도교의 이인(異人)임을 알 수 있다. 부친의 수련은 양형법(養形法) 중 복이(服餌)에 해당한다. 복이는 복약(服藥)이라고도 하며, 선약을 먹어 신선이 되는 방법이다. 갈홍은 선약을 상·중·하로 나누고, 상약을 먹으면 온갖 신령을 부릴 수 있고 천신이 된다고 했다.⁵⁶⁾ 그렇다면 장한웅의 부친이 먹은 것은 상약이고, 그의 출가는 승선(昇仙)일 가능성이 높다.

부친은 출가를 하며 아들에게 『옥추경(玉樞經)』과 『운화현추(運化玄樞)』를 전해준다. 이인이 수련자에게 도교 경전을 전수하는 것은 도교 인물전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보통은 신선의 현현(顯現)이나 사승(師承)의 관계로 전수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자간 가학(家學)의 방식으로 전승했다. 이 책들을 수만 번 읽고 장한웅은 세상과 단절하고 도교에 정식 입문한다. 장한웅의 ‘세속 단절’은 가학으로 이어지는 도교적 가풍과 기질 때문이다. 장한웅은 양의로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도리를 구현했던 집안 사람이고, 실제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된 이인의 가문 출신이다. 조선조의 북창 정림과 같이 도교와 수행을 가학으로 삼되 유교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유교에 얽매이지 않는 학문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하겠다.⁵⁷⁾

18년간 지리산에서 수련을 하고 회귀한 그는 귀신을 부리고 생명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사람을 돕는다. 그는 ‘치병’의 방법으로 덕행을 쌓는 것이다. 이것은 도교의 핵심적 수련 방식이고 동시에 도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도교에서 완전한 인간/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위급함을 구원하여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공을 세워야 한다. 그저

56) 갈홍, 『포박자·내편』 권11, 「仙藥」, “上藥令人身安命延, 昇爲天神, 遨遊上下, 使役萬靈, 體生毛羽, 行廚立至.”

57) 이경수, 「북창 정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172~180쪽.

방술만 닦는다고 장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도교의 가르침이다.⁵⁸⁾ 장한웅은 흉가를 만드는 요괴 인면사(人面蛇)를 물리치거나 죽은 물고기를 살리고 사람의 앞날을 예언한다. 장한웅은 이러한 이적을 통해 사람을 돕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다.

장한웅은 자신이 예언한 날에 죽고, 사리(舍利) 72개를 남겼다. 죽은 후 그는 정봉의 집에 나타나 금강산으로 간다고 말한 후 떠났다. 장한웅이 죽으며 사리를 남긴 것과 사후에 정봉을 만난 것은 그의 존재 증명과 관련이 있다. 두 가지는 그가 실제로 ‘존재했음’에 대한 물질적 증거와 구체적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의 사리’는 서사적 지식이 되어 조선후기 고증적 실학자 이규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신선골’을 설명하는 데 논증의 근거로 쓰였다.⁵⁹⁾ 또 정봉은 죽은 장한웅을 만나 그가 금강산으로 간다고 했던 말을 전함으로써 시해선이 된 장한웅의 존재가 이야기 방식으로 증명력을 갖게 되었다. 두 가지가 장한웅이라는 도교 인물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한 것이다.

〈장생전〉의 장생은 밀양 땅 죄수의 아들이다. 3살에 모친을 잃고, 비첩의 참언을 믿은 부친에게 쫓겨나 농장 노비의 집에서 자란다.⁶⁰⁾ 부친의 ‘출거 명령’이 그가 세속과 단절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출거 명령이 ‘참언’ 때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세계/유교적 질서가 정당한 준거를 통해 운영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부친의 ‘출거 명령’은 유교적 질서의 핵심인 천륜을 끊는

58) 갈홍, 『포박자·내편』 권3, 「對俗」, “按『玉鈴經』中篇云, 立功爲上, 除過次之. 爲道者以救人危, 使免禍, 護人疾病, 令不枉死, 爲上功也. … 若德行不修, 而但務方術, 皆不得長生也.”

5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道藏總說」, 한국고전번역원, 『皇明史』禮部言大西洋人利瑪竇所攜, 又有神仙骨, 夫旣稱神仙, 自能飛昇, 安得有骨云云, 此無異唐時佛骨也. 『海東異蹟』張漢雄修鍊得道, 於壬辰倭亂, 入道遙山, 爲賊所斫, 血如白膏, 茶毗之, 瑞光燭天三晝夜, 得舍利七十二粒, 其大如芡實, 色紺碧, 藏之塔中云, 道流亦有舍利, 則是可謂神仙骨也歟?”

60) 〈장생전〉,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행위이다. 부친은 스스로 자기가 사는 세상의 질서를 훼손하는 모순을 행한 것이다. 천륜은 유교 사회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부자 관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간의 천륜이 끊어졌다는 것은 장생이 더 이상 유교 사회의 일원이 아님을 말한다. 부친이 천륜을 끊은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장생은 아버지의 질서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다.

장생이 처음 새롭게 부모 관계를 맺은 계층은 노비였다. 이것은 장생의 존재가 민중을 기반으로 재설정되고 있음을 보인다. 민중 기반의 삶은 주변과 기층을 중시하는 도교적 세상의 지향과 연결된다. 데리다(Derrida)가 말한 ‘폭력적 위계질서’를 벗어나서 장생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존재 기반의 재설정을 ‘실패’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도교가 민중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은 유교가 사족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과 ‘다른’ 세계관일 뿐 ‘낮은’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의 좌표 재설정에 대해 장생은 아쉬움이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출거 후 한 번도 부친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기꺼이 절인이 되어 전국을 떠돌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즐거운 노래’를 장기로 삼아 민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소통했다.⁶¹⁾

장생은 1592년 수표교에서 죽은 후 흥세회 앞에 나타난 ‘해동일국’을 찾아간다는 말과 함께 물에 들어가지 말고 산성에 오르지 말 것을 경계했다. 이것은 앞에서 장한웅이 정봉을 만났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흥세회가 장생과의 만남을 전하고 장생의 예언대로 죽게 되면서 장생의 삶과 예언은 ‘믿을 수 있는 일, 이야기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계집종의 봉미(鳳尾)를 훔쳐 간 소년들에게 “두 아우는 행동을 삼가 세상 사람이 우리의 종적을 보게 하지 마라”⁶²⁾라고 한 말은 오히려 손쉽게

61) <장생전>, “善談笑捷給, 尤工謳, 發聲凄絕動人.”

62) <장생전>, “二弟慎行止, 毋使世人瞰吾蹤也.”

노출되어 허황되게 여겨지는 것을 경계한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허균의 도교 인물전에 나타난 세속 단절과 회귀는 유교 질서와 다른 지향을 지닌 인물의 자유로운 기질을 드러내고 도교적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교 인물의 ‘세속 단절’은 세속 질서에 편입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유교 질서와 다른 삶을 사는 인물의 자기 선택이자 도교적 인간 되기라는 존재적 전환을 말한다. 또한 회귀는 존재함을 증명하는 과정이자 세상 사람과 도교적 삶을 전하는 소통의 과정이다. ‘세속-단절-회귀-단절’의 구조는 ‘유교 질서와 어긋나는 다른 자질의 발견-도교적 인간 되기를 통한 존재적 전환-도교 인물의 존재함 확인과 전환된 존재의 세속과 소통-완전한 인간 되기’를 의미한다.

5. 후대적 변모와 의미

도교 인물은 유교적 세상에 살면서 세속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내력과 자질을 발견한다. 그러한 내력과 자질은 가족의 배신과 우발적 살인, 가문의 내력과 부친의 가르침, 서모의 모함과 부친의 출거 명령 등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 수련을 통해 도교 인물로 존재론적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런 후 다시 세상에 회귀하여 이적의 방식으로 유교적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그런 세상에 사는 자신이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자’임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한다. 그리고 도교적 삶의 방식을 알리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마치 3차원을 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서 온 존재처럼, 남궁두와 장한웅과 장생 같은 도교 인물은 지속적으로 유교 질서만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들이 ‘존재함’을 알리고 자신이 사는 세상의 윤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질서와 다르면서 대등한, 때로는 기존 질서보다 더 나아

보이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하다.

삶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전하는 데 도교 인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서, 도교 인물전은 단절보다 회귀에 방점이 놓인다. 단절/수련을 통해 유교 적 세상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전환을 이룬 인물이 도교적 삶의 방식을 알리 기 위해 세속에 회귀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허균 이후에 등장하는 도교 인물전은 회귀를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생략이 발생한다.

작품 (작가)	출신	수련	이적	득선
	세속	단절	회귀	단절
김신선전 ⁶³⁾ (박지원)	생략	아들 낳은 후, 스스로 벽곡	하루 수천 리 다님	생략, 강릉
김신선전 ⁶⁴⁾ (조희룡)	생략 김가기	아들 낳은 후, 스스로 책으로 벽곡 등 수련 ⁶⁵⁾	3번 금강산에 가도 신이 해어 지지 않음 ⁶⁶⁾ 10년 벽곡·면벽 수련한 노승 을 이김	병 없이 죽음(시해 라고 여김) ⁶⁷⁾
조신선전 ⁶⁸⁾ (정약용)	책 파는 아쾌	생략	40대 모습으로 늙지 않음	생략
조신선전 ⁶⁹⁾ (조희룡)	책 판매상	생략	130-140의 나이에도 40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늙지 않음 ⁷⁰⁾	탈 없이 죽음 문자선(文字仙) ⁷¹⁾

63) 박지원,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3, 창비, 2018, 377~384쪽.

64) 조희룡,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호산외기』, 한길아트, 1998, 43~47쪽.

65) 작품의 본문에 수련과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김신선 사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손자 성윤에게 생전에 김가기에게 빌려 준 책 한 권을 찾아간 부분에서 김가기의 수련을 추정할 수 있다. 호산외사는 평어에서 이 부분을 ‘곡기를 끊고 정기를 삼키다’라고 묘사했다.

66) 호산외사는 이 부분을 평하며 ‘허공을 거닐다’라고 묘사했다.

67) 김신선은 죽기 전에 새벽 사뭇가 샘물을 입으로 넣어 향문으로 빼내기를 몇 차례했다. 이 부분을 호산외사의 평어에서는 ‘장을 씻어내다’라고 했다.

68) 정약용, 김도력 역, 『다산시문선』 권17, 한국고전번역원, 1985.

69) 조희룡,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1998), 앞의 책, 99~100쪽.

70) 조신선은 나이를 물으면 늘 60이라 했다. 입전자는 70세 된 노인이 아이 때에도 60이

18세기 후반 이후의 대표적 도교 인물전은 <김신선전>과 <조신선전>이다. 김신선에 대해서는 박지원과 조희룡이 썼고, 조신선에 대해서는 정약용과 조희룡이 기록했다. 4편 모두 도교 인물전의 구성 요소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있다. ‘출신’에서는 보통 지명과 계층, 시대를 밝혀 인물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데, 그것도 대부분 소략하다. 수련 과정도 구체적 내용은 없고, 스스로 벽곡을 한다고 하여 흔적만 남겼다. 득선도 모두 생략되었고, 조희룡의 <김신선전>에서는 시해라는 소문이 있었음만 밝힐 뿐 시해의 구체적 과정과 내용은 없다. 서사의 분량이 모두 세속으로의 회귀와 이적에 집중되었다.

전체적으로 세속과 단절을 나타내는 요소가 크게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신선전>에는 수련 내용이 아예 없다. 박지원의 <김신선전>에는 단절의 계기가 뚜렷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후 세속의 인연을 접은 듯 그려진다. 이전의 도교 인물전이 모든 온갖 방법으로 인륜을 끊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온전한 세속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조희룡의 <김신선전>에는 김가기의 아들은 물론 그 손자까지 나온다. 이것으로 본다면 <김신선전>의 ‘단절’은 ‘불완전한 단절’ 혹은 ‘세속 내 단절’이라고 하겠다.

회귀/이적의 내용은 가벼운 몸으로 수천 리를 빨리 다닐 수 있음과 늙지 않음이다. 가벼운 몸은 우화등선, 늙지 않음은 불로장생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이적이다. 모두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건강한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속 사람에게 쉽게 기억되고 빠르게 전승되어 도교 인물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앞시대 도교 인물전의 이적 부분이 지닌 역할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일화를 적으며, 조신선의 나이를 130~140세로 헤아렸다.

- 71) 조희룡은 『금문상서』를 위위서 전승한 계극과 복생, 『도덕경』을 위운 종능, 『진고』 등의 도교 경전을 쓴 도홍경을 신선 중에 문자 간에 유희하는 자로 평한 후 책 펴는 것을 즐긴 조신선도 문자선을 보충할 수 있는 인물이라 했다.

후대 작품의 특징은 입전 대상의 단절 서사가 줄어든 대신 편찬자의 논평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허균의 작품과 비교할 때, <김신선전>과 <조신선전>에서는 김신선과 조신선의 이야기보다 편찬자의 논평이 중심에 선다. 논평의 내용을 보면, 전자는 초기 도교 인물전의 편찬 취지를 부각하여, 입전 인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치중한 편이었다. <남궁선생전>에서 허균은 ‘조선에는 안기생처럼 득도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하지만 남궁두를 보니 그런 인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논평으로 도교적 인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장산인전>에서는 별도의 논평은 아니지만 정봉의 이인적 면모를 추가하여 장산인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증언했으며, <장생전>에서는 허균이 직접 장생과 친하게 지냈던 일을 말하며 그가 신(神)이거나 검선일 것이라고 보증했다.

<김신선전>과 <조신선전>의 논평은 대부분 입전 인물들이 진짜 신선이 맞는지를 회의(懷疑)하는 내용이다. 박지원은 “도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름을 가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고,⁷²⁾ 조희룡은 “배워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신선이다.”라고 하거나⁷³⁾ “조는 과연 신선일까?”⁷⁴⁾라고 했다. 정약용은 “조신선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이처럼 늙지 않았으니, 혹 말세가 되어 신선도 시속(時俗)을 면할 수 없어서인가?”라고 했는데,⁷⁵⁾ 이는 조신선을 신선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모두 회귀/이적에 대한 반응이고 질문인 것이다.

김신선과 조신선은 아들을 낳거나 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속에 터 잡고 살면서 특별히 세속과 단절하지 않고 도교 인물의 계보를 잇는 이적을 행한다. 그 이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선’이라고 호명하고 기

72) 박지원, 이우성·임형택 역(2018), 앞의 책, 381쪽.

73) 조희룡,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1998), 앞의 책, 45쪽.

74) 조희룡,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1998), 위의 책, 99쪽.

75) 정약용, 김도련 역(1985), 앞의 글.

억하며 기록한다. 밥을 안 먹고 몸이 가벼워 잘 걸으며 추위를 안 타고 더위를 안 타며, 일정 나이 이상으로 늙지 않는 것. 이러한 이적은 사소해보이지만 세상은 그들을 신선이라 부른다.

그리고 편찬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들을 신선이라 부르는지’ 알기 위해 질문하고, 그들의 참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뒤쫓는 것이다.

허균의 작품이 ‘세속과 단절한 도교적 자유인이 회귀와 이적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두 세계의 경계에서 소통하는 과정’이라면, 박지원 등의 인물전은 ‘세속과 단절하지 않고 세속 안에 숨은 도교적 자유인의 존재를 탐색하고 그와 소통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의 주체가 질서 밖 도교 인물에서 질서 내 인물, 특히 지식인으로 이동한 것이다.

입전자들은 당시 민중들이 기억하고 구전하는 신선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신선과 조신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체부동 김봉사, 바둑 잘 두는 누각골 김침지, 거문고 잘 타는 누각골 이만호, 손님 좋아하는 삼청동의 또 다른 이만호, 손님 좋아하고 술을 즐기는 미원동 서초관과 모교의 장침사와 사복천변의 지승, 꽃을 가꾸는 이문의 조봉사, 서책과 고검을 가지고 있는 계동의 유판관⁷⁶⁾ 그리고 ‘70세 된 어떤 노인’⁷⁷⁾ 등이다. 이들은 익명의 대중이다.

입전자들은 도교적 인물의 삶을 기록하기보다 민중의 기억과 구전 속에서만 발견되는 신선을 찾는 과정을 기록했다. 박지원의 <김신선전>은 도입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김신선을 뒤쫓는 과정이다. 박지원은 겸인인 윤생과 신생을 시켜 서울 안을 구석구석 돌며 김신선을 찾는다. 그러나 언제나 김신선은 그들보다 한발 먼저 떠나간다. 중국에는 임동지라는 사람에게서 ‘강릉’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허균의 작품은 편찬자가 입전 대상의 입장을 공유하며 도교 인물의 존재

76) 박지원, 이우성·임형택 역(2018), 앞의 책, 378쪽.

77) 조희룡, 실시학사조선전문학연구회 역(1998), 위의 책, 99쪽.

를 증명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추구했다면 박지원 등의 작품은 세상/대중이 증언하고 있는 신선을 편찬자가 찾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선이라 불리는 도교 성향의 인물은 민중에게 자주 나타나고 소통하지만 지식인에 속한 편찬자에게는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편찬자는 그들의 존재를 회의하고 추측하고 때로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만나고 소통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도교 인물전이 “주자학의 해체에 한 몫”을 했다면⁷⁸⁾ 그것은 주자학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민중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 시대에는 도교 인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었고 후대에는 민중의 익명성 안에 깃들여 있는 그들을 발견하는 것이 도교 인물전의 과제였다. <김신선전>과 <조신선전>은 세상 속 익명의 대중들 사이를 쉽 없이 오가는 그들에 대한 증언이다. 그들은 세속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속에 구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힘쓰는 세력’에 저항하며 민중을 규합한다.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경계에서 있어야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며 비판도 가능하다는 칸트의 말처럼,⁷⁹⁾ 김신선과 조신선의 이야기는 민중의 확장된 전승 속에서 신선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유교적 질서를 초월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78) 박희병(1989), 앞의 논문, 92쪽.

79) 백중현, 『존재와 진리-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현실사, 2000, 39~54쪽.

참고문헌

갈홍, 『포박자』

반고, 『한서』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한국고전번역원.

정약용, 김도력 역, 『다산시문선』, 한국고전번역원.

정약용, 『경세유표』, 한국고전번역원

허균, 임형택 역, 『성소부부고』, 한국고전번역원.

張繼禹 主編, 『中華道藏』 45-47권, 華夏出版社, 2004.

갈홍, 임동석 역주, 『신선전』, 2009, 동서문화사, 1~461쪽.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한국 판소리·고전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657~669쪽.

김수연, 「고려후기 총지종의 활동과 사상사적 의미」, 『회당학보』 16, 회당학회, 2011, 251~285쪽.

김중균 편역, 『중국전기소설선』, 박이정, 2005, 1~401쪽.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Ⅰ), 『한국학보』 14-4, 일지사, 1988, 25~53쪽.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說話·野譚·小說과 傳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Ⅱ), 『한국학보』 15-2, 일지사, 1989, 70~97쪽.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1~465쪽.

배형, 최진아 역, 『전기』, 푸른숲, 2006, 1~419쪽.

백종현, 『존재와 진리-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현실사, 2000, 1~417쪽.

유향, 임동석 역주, 『열선전』, 2012, 1~392쪽.

이경수, 「복재 정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171~192쪽.

이경우, 「문집소개 전 양식의 변모양상」, 『한국 판소리·고전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612~627쪽.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3, 창비, 2018, 1~496쪽.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역,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1992, 1~239쪽.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1~374쪽.

- 조희룡,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호산외기』, 한길아트, 1998, 1~163쪽.
최창록, 『한국신선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4, 1~356쪽.
최준하, 「조선조 신선전에 대한 분석 및 비교고찰」, 『한국언어문학』 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161~185쪽.
홍만중, 이석호 역저, 『해동이적』, 을유문화사, 1982, 1~257쪽.
대한성서공회, 『큰글자 굿데이 성경전서』, 생명의말씀사, 2019, 1~447쪽.

ABSTRACT

Aspects and meanings of secular severance in Joseon Taoist figures

Kim, Soo-young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the “Rise of Taoist Figure Stor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is end, the creation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Taoist Figure Stories in early China were first examined, and the Joseon Taoist Figure Stories were then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its literary historical succession.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social disconnec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Taoist Character Stories was derived, focusing on the aspects and meanings of secular disconnection and secular regression seen by the figures.

The purpose of creation, which is confirmed in the Liexianzhuan, Shenzianzhuan, and Heo Gyun’s Taoist Figures Stories, is to confirm the historicity of Taoist figures. Specifically, the content is composed of “Birth-training-doing bizarre deed-getting Immortality”. This is re-described in the structure of “secular-severance-return-severance”, and the content is “subordinate to the world-being cut off by the world-being voluntarily returning to the world-being perfected by spontaneous disconnection from the world”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secular-severance-return-severance” is “discovery of other qualities contrary to the Confucian order-existential transformation through becoming a Taoist person-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Taoist character, and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of the converted being-becoming a complete human.”

Taoist figures are people who pursue a new way of life that is different from the neo-Confucian order. They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expand their presence. In HeoGera, it was a social request to prove the existence of Taoist figures, and in the later generations, it was the task of the Taoist Figures Stories to discover them in the anonymity of the people.

Key Words

Taoist Character Stories, Liexianzhuan, Shenxianzhuan, Namgung Senseonjeon, Jangsaninjeon, Jangsaengjeon, Kim Shinseonjeon, Cho Shinseonjeon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